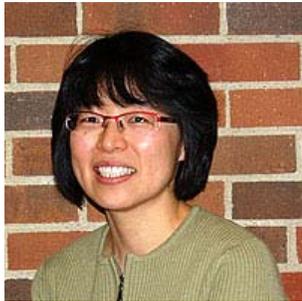


1. 김영현 회장 인사말



KAGES 회원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2010 년이 다 끝나갑니다. 올해 초에 꿈꿨던 목표와 소망들 많이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회도 벌써 두해 짝을 맞이 했습니다 - 2008 년 겨울 무렵에 전임 회장이신 성정창 선생님께서 학회 창립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던 기억이 선합니다. 부족한 제가 2 대 회장이 되어, 다섯 이사님 (김창주, 성정창, 안기철, 장희준, 최종남)들과 함께 재미 한인 지리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우의 도모에 KAGES 가 중심 매체가 되자 했던 초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 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KAGES 와 한국의 독도연구소가 주최한 독도 연구 발표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KAGES 의 대학원생 회원들의 학술 발표 지원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보내 주신, 혹은 약속하신, 박남규, 백종학, 심선희, 윤종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고 어설피지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도움으로 우리 학회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KAGES 회원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동북아역사재단과의 모임 (최종남 이사)

2010 년 미국연례지리학대회 기간중인 4 월 16 일(금)에 워싱턴 D.C.의 Churchill Hotel 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와 재미지리정보 및 환경과학자협회 (KAGES)가 주관한 “2010 동해표기확산 재미한인학자 워크숍”이 있었다. 이 워크숍은 2009 년에 이어 두번째로 재미지리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진 동해표기확산 및 독도관련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에서는 박시영 교수 (서일리노이대)와 윤희진 박사 (위스콘신 주립대, 밀워키), 상선희 박사 (신시내티대), 강지연 교수 (아이오아대학), 지상현 (일리노이주립대), 그리고 최종남 교수 (서일리노이대) 등 5 명의 지리학자와 1 명의 인문학자가 지명의 의의와 중요성, 독도관련 담론전 전략 및 민족정체성, 신지정학적으로 본 독도, 그리고 영미권 지도제작사의 지명표기 특성 및 성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성정창 교수 (서조지아대)와 김창주 교수 (신시내티대), 장희준 교수 (포틀랜드주립대)가 참석하여, 각 발표주제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토론을 이끌었다. 발표자와 토론자외에, 다수의 한국 및 미국의 한인지리학자들이 참석하여 KAGES 가 주관하는 대외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는 세계적으로 동해지명표기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기석 교수가 참석하여, 한국정부와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동해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설명하면서, 재미지리학자들도 동해지명 표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주최측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신길수 국제지명표기 대사와 신승혜씨가 참석하였다. 신길수 대사는

동해지명 공동표기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고, 동해 지명표기 확산에 재미지리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이 동해지명표기와 관련한 재미지리학자들의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KAGES 가 수행할 각종 대외 행사에 재미지리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지명표기의 사회 문화적 중요성과 분쟁사례 연구 (상선희 회원) (The Social and Cultural Importance of Toponymy and the Analysis of Toponym Conflicts)

지명표기에 관한 본 연구는 2010 년 4 월에 워싱턴 디씨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린 제 2 차 독도/동해 Workshop 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번 독도/동해 워크샵에서는 영토 및 영해 현황을 알리는 시도와 함께 독도와 동해명칭 사용에 대한 이해와, 그 지지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참여로 더 많은 자료와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일본해와 같은 지명분쟁의 사례는 같은 해수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에서 시작되어 때로는 민족간 혹은 국제적인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하여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동해 (East Sea)’의 해역 명칭은 19 세기 중반 이후 일본 제국주의, 팽창주의의 확장과 맞물려있는 세계 주요 지도제작 시점과 연관이 되어 현재 많은 국외 지도 제작사들은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친근하지 못한 명칭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식민시대의 언어적 식민화의 영향에 의한 지명표기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식민시대 이후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 일제 강점이라는 불합리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 국제 수로학회에 의한 규정 및 지도제작이 이뤄지던 1929 년에 지도제작과 지명결정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메릴랜드 대학 (the University of Maryland) 의 John Rennie Short 교수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동해연구회 주최 제 16 회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네덜란드 헤이그, 8/20~21, 2010) 실제로 동해-일본해 병행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관과 함께 변화하는 세계지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때에 맞춰 시기적절한 연구에 대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명 혹은 해수역명에 관한 여러 월근법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보다 포괄적인 안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 한국 정부의 동해지명 회복 내지 또 다른 대안을 보조하는 예비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명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역사와 서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지리적 접근방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리적 접근방법은 장소에 여러 원근법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많은 수의 세계 지도제작사가 시각을 달리하여 그 동안의 지도상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명 혹은 해수역명에 대한 수정을 시작했다. 지리학에서 지명과 해수역 명칭은 지명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지명학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지명의 근원과 뜻 그리고 유형을 말해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민족의 점유 혹은 거주사실과 민족문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명과 해수역명의 나라 혹은 민족 간의 차이는 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거나 수역을 경계로 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사용해오던 민족 고유의 명칭이 있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해수역명 분쟁지역의 사례는 가깝게는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멀리서는 유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명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특정 지명을 사례로 장소에 대한 사회역사적 사건들을 알아봄으로써 각 민족이 어떻게 그들의 거주를 결정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상호 발전을 꾀하였는지 연구 조사하여 특정 이름과 연관된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공백을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해수역명칭에 대한 지리학적, 역사적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분쟁사례를 연구하여, 분쟁의 요인과 해결점 등을 분석하고, 동해-일본해의 명칭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사해 보는데 있다. 분쟁의 예로는 언어의 차이, 지리상 상대적 위치의 차이, 문화 역사관의 차이, 상업적 목적 그리고 정책 조약의 모호성과 효율성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 연구는 주로 영어로 된 자료들과 영어권에서 구할수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세계의 해수역명과 관련한 역사, 지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수역명의 분쟁사례로는 North Sea-German Sea or West Sea, English Channel-La Manche, 그리고 Persian Gulf-Arabian Gulf or the Gulf 를 예로 들수 있고, 지명연구의 사례로 만주의 북간도와 일본에서 한국지명과의 유사 관련성을 찾았다. 본문에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는 목적하에 연구지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결론에서는 각지역의 명칭에 관련해 동해문제와의 연관성과 함축적 의미를 찾아보며 후에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가 주를 이루었고 지도자료에서는 그외의 다른 언어표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명 혹은 해수역명과 관련된 분쟁사례 연구는 동해지명의 회복 또는 최소한 일본해와의 병기에 관련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어권 이외에서의 사례연구도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시작과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KAGES 관련자분들과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좀 더 폭을 넓히고 깊이를 늘일수 있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의견을 바랍니다.



4. 최근 발표된 미국 지리학과 박사과정 프로그램 보고서에 대한 의견 (장희준이사)

지난 9 월말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에서는 지리학을 포함한 미국 전체 62 개 박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였다. 1995 년 보고서이후 15 년만에 발표한 보고서이어서 그간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특이한 점은 서베이 결과, 연구영역, 학생영역, 다양성, regression 분석 등에 의해 프로그램이 폭넓게 평가된 점이다. 이전의 보고서가 주로 교수들간 주관적인 서베이에 의존한 반면, 이번의 발표는 단지 한 잣대에 의하지 않고 각 영역별로 상위 및 하위 range 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지리학 분야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거의 모든 총 49 개 프로그램이 서베이 되었다. 그 결과를 간추리면 여전히 상위권내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 몇몇 대학의 괄목한 만한 성장이 돋보인다. 이들 대학이 지난 1995 년 NRC 발표에서 중위권 이하에 있었으나 이번에 상위권에 올라올 수 원인을 무엇일까? 이는 크게 학내적인 요인과 주변의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들 프로그램이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과 경계를 트고 문제 중심적으로 연구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연구나 지구시스템 과학등 지리학과 인접영역을 적극 수용하여 지리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실제 한 학과는 이름을 Geography and Environment 으로 바꾸면서 지난 수년간 인접 분야의 학자를 대거 고용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 대학은 원격탐사 분야에선 미국내 1,2 위를 고수하여, 도시화, 환경재해, 환경생태 모니터링 등 당면한 지구환경 문제에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Study Abroad Program 및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외적인 요인으론 이들 대학이 모두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 입지함으로써 인근의 대학이나 관공서로부터 정보 및 인적 교류가 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자극하며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도시는 또한 지리학의 유용성을 외부로 알리는데 좋은 장소일 수 있다.

지금도 대학에서 지리학의 위상은 탄탄하지 만은 않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때 일수록 지리학은 구조조정의 도마대로 오르기 쉽다. 최근 남가주대학에서 지리학과가 폐과된 경우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흥망성쇠는 결국 학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범학문적, 비교지역적인 연구가 대세로 잡아가고 있는 시점, 우리 지리학자들, 특히 재미 한인 지리학자들은 여러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체험문화, 동서양을 어우를 수 있는 철학은 우리의 튼튼한 밑천이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 몹시 바빻겠지만, 한발짝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범세계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NRC 서베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chronicle.com/article/NRC-Rankings-Overview-/124734/>

<http://testsvr1.kpi.cornell.edu/views/NationalResearchCouncilReports2/StatsbyFieldPOST>

5. 시애틀 AAG 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안기철 이사)

2010 AAG 를 맞아 시애틀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애틀에 방문하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요약해 보았습니다.

- **복장:** AAG 가 개최되는 4 월은 초봄의 날씨이지만 아직 우기여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평균 기온은 8.9°C 입니다. 비옷이나 따뜻한 여분의 옷을 준비해오시기를 권합니다.
- **교통:** AAG 학회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Washington State Convention Center 에서 열립니다. 다운타운 주변을 투어하실 때 대중 교통 수단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 **숙박:** 주로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대부분 하루 \$100 이 넘는데, 저렴한 가격을 원하시면 한인이 밀집한 Lynwood 나 Seatac 공항 주변의 모텔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렌트해야하고 30 분 이상 운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 **한인 밀집지역:** 시애틀 광역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어있지는 않지만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 약 100,000 에서 150,00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Tacoma, Federal Way, Lakewood, Lynwood, Seattle, Puyallup, Bellevue 등 입니다. 이중 Seattle downtown 으로부터 가까운 도시는 Lynwood 와 Bellevue 입니다.
- **한인 마켓:** Lynwood 에 H-Mart 와 팔도가 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China Town 에 우와지마야라는 유명한 마켓이 있습니다.
- **한국 식당:** 다운타운에 귀빈원, 이모네, 신라(우와지마야)라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북쪽으로 Lynwood (가원, 삼오정 등) 나 Shoreline (해남갈비, 진고개 등) 가시면 많은 한국 식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H-Mart 내에 구비된 한인업소 전화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가볼만한 곳 (너무 많습니다. Convention Center 1 층에 비치된 여행 가이드 책자들을 참고하세요.)**
 - 다운타운: 스타벅스 1 호점, Pike Place Market, Space Needle, 다운타운 shopping, 수족관, 시애틀 센터, 파이오니어 스퀘어 언더그라운드 투어, 보잉투어, 시애틀 야경
 - 산: Mount Rainier, St. Helen, Mt. Baker, ...
 - 바다: San Juan Safaris-Whale Watching, Driving in Olympic Peninsula, Deception Path and Whidbey Island, ...
 - Shopping: Seattle Premium Outlets Mall (Tulalip), Northgate Mall, South Center Mall, Alderwood Mall, ...

- 시애틀 주변에 있는 대학들

학교 이름	학생수	웹사이트
University of Washington	44,221	www.washington.edu
Seattle University	6,177	www.seattleu.edu
Seattle Pacific University	3,830	www.spu.edu
Seattle Community Colleges (4 campuses)	27,760	www.sccd.ctc.edu
Art Institute of Seattle	2,425	www.ais.edu
Cornish College of Arts	800	www.cornish.edu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기철(gcahn0808@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소식

KAGES 는 지리/지리정보/환경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과학자들의 학문활동을 돕기위해 북미지역에서 수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Scholarship 과 Gran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 년도 아래와 같이 8 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세 종류의 장학금이 준비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1 Pixoneer Scholarship - 5 명, \$200 each
- 2011 Pak Best Student Paper - 1 명, \$300
- 2011 Sim AAG Student Travel Award - 2 명, \$500 each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AGES 협회 사이트(<http://www.KAGES.org>)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0 Pixoneer Scholarship Awardees

- Human Geography: Seung-Ook Lee, The Ohio State University
- GIS/RS/Spatial Statistics: Youngsang Kwon, SUNY-Buffalo; Kyoungjin Park, The Ohio State University; Byungyun Yang, University of Georgia
- Physical Geography: Kyung In Huh, The Ohio State University

회원가입안내

학회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투표권과 함께 다양한 학회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내서는 학회 웹사이트인 <http://www.kages.org>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후 support@kages.org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원동정

김창주 이사 (University of Cincinnati)

- Dr. Kim attended the meeting of the 2010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During the visit, he has visited various geography programs, including University of Tokyo and University of Tsukubar. He also obtained the recent information about East Sea and Dokdo from Japanese academic research perspectives.



박선엽 회원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로 부임.

반효원 회원 (California State Univ.)

UCGIS / ESRI Junior Scholar Award, University Consortium for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UCGIS) Summer Assembly, June 15-16, 2010, Crowne Plaza Beach Resort, Hilton Head Island, SC.

성정창 전임회장 (Univ. of West Georgia)

US Geological Survey 로부터 \$492,000 를 받아서 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 가 있는 Charlton 과 Ware 카운티를 대상으로 LiDAR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 중. KSEA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조지아 지부 멤버쉽 커미티 위원장으로 선임.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tlanta Regional Commission (ARC), Georg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서울시립대, NED University in Pakistan 등과 협력하여 Georgia 의 Fulton County 를 대상으로 교통소음모델링 및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중이며, 연구팀의 논문 두 개가 Environment International (Impact Factor:4.786)에 출간 중이며, 다른 하나가 리뷰중에 있음.

안기철 이사 (Snohomish County Public Works)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형래 교수와 Snohomish County (WA)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10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워크샵을 가짐. 주제: "GIS and Remote Sensing software tools to identify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in Snohomish County, Washington"

양병윤 회원 (Univ. of Georgia)

1) The TOSOK Best Research Paper Award (Minister Award)

The award is given to the author for the amount \$10,000 as a prize, which i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public of Korea.

위 Paper award 는 The 2010 International Tourism Symposium, organized by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TOSOK)에서 주관했으며, 해당 논문이 출간됨.

" Yang, Byungyun, H.Song, J. Kim (2010) "Developing a Reinforced Heritagescape using GIScience: A Case Study of Gyeongju,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ume 10, Number 2, pp. 1-34.

2) Award of Foreign Travel Assistance for a Researcher, Supported by the 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 Inc. This award is used exclusively toward the purchase of international round-trip airfare to and from the meeting site. It has \$1,297for international round-trip.

장희준 이사 (Portland State Univ.)

-미국 오레건주 기후영향평가 보고서 수자원 부문 책임저자로 활동, 전문이 온라인으로 출간됨 <http://occri.net/ocar>

<http://www.katu.com/news/local/111078559.html>

- 포틀랜드 대도시 권역 수자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전략 워크샵을 개최. 이 워크샵은 NOAA-SARP 지원하에 이루어짐.

정일원 회원 (Portland State Univ.)

-Post-doctoral fellowship (2010-2011), Institute of Sustainable Solutions

최운섭 회원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UW-Milwaukee 학부생연구지원처로부터 \$2,816 을 받아서 2010-11 년에 "Effect of climatic variability and change on the Milwaukee River streamflow"이라는 연구를 도와주는 학부생을 지원

-2010년 8월 브라질의 포즈 도 이구아수에서 열린 Meeting of the Americas 에서 "Geographic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emperature over Minnesota and Wisconsin Identified from North American Regional Reanalysis Data"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발표

-UW-Milwaukee 국제교육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2010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한국에 다녀감. 한국 방문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기후변화와 공간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향후의 연구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음

-워싱턴 디시 미국지리학회에서 장희준 회원과 함께 "Climate Change and Water Resources: From Impact Assessment to Adaptation"라는 주제의 세션을 조직하고 좌장을 나누어 맡았음